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3)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3 (2)96사단 주둔지-(12)제주시 서부권
모슬포 일대와 닦은꼴 진지구축 주목

입력 : 2007. 07.12. 00:00:00



▲제주시 한라수목원(광이오름)에서 발견된 일본군 갱도
진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오름마다 1백m이상 대형갱도 구축

실체 규명위한 당국 관심 지원 절실

약 1만2천명으로 편성된 일본군 제96사단은 어디에 배치됐을까. 미군 등 연합군과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군사시설을 구축했을까.

제96사단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대규모 부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1945년 3월10일 편성돼 4월1일부터 9일 사이에 제주에 상륙한다. 그때까지 제주에는 약 3천 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겐(玄)부다이'라 불린 96사단 중 일부 병력은 처

음 모슬포에 상륙한다. 그 후 중국 만주에서부터 제111사단이 제주로 상륙하자 그 자리를 내주고 제주시 일대로 이동한다.

제주 주둔 부대 가운데서는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한 96사단은 3개의 보병연대(292, 293, 294연대)로 구성됐다. 또 예하부대로 독립대전차부대를 비롯 공병대, 고사포부대 등이 있다.

이 많은 병력과 예하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둔지와 갯도진지 등의 구축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모슬포·안덕 일대의 제주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하 군사시설 관련 연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제주시 일대 연구는 거의 초보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제주시 권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경향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취재팀의 탐사결과 제주시권역 역시 모슬포 지역에 버금가는 대규모 일제 갯도진지 등이 구축됐음이 밝혀졌다.

제주시 도심권 오름인 민오름 남조봉 광이오름 상여오름 오등봉은 하나같이 1백m 이상 되는 대형갯도를 비롯한 대규모 진지가 구축됐다.

민오름에서는 대형갯도 및 정상부에서 토치카 시설이 발견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취재팀이 인터뷰한 양진현씨(오라2동 노인회장)는 민오름에 일본군이 판 굴(갯도)이 18곳에 이른다고 증언, 오름 전체가 거대한 군사요새였음을 말해준다.

모 군부대가 자리한 남조봉과 한라수목원으로 잘 알려진 광이오름 역시 10여 곳이 넘는 대단위 갯도가 구축됐다. 특히 한라수목원(광이오름)은 생태학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제 군사시설을 정비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상여오름도 대규모 갯도가 구축되기는 마찬가지다. 오등봉과 검은오름에서는 오름능선을 관통한 갯도가 발견됐다.

갯도는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죽음의 공간이자 무덤이었다. 검은오름과 열안지오름에서 잇따라 발견된 소뼈는 62년 전 제주섬에서 빚어진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현장이다.

이러한 일본군 군사시설은 제주시 서부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1945년에 작성된 '제58군배비개건도'에는 제주시 서부권역이 '주저항진지'대로 표시돼 있다. 또 1945년 8월에 작성된 또 다른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는 '공격준비진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취재팀의 탐사결과는 일본군 군사지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제주시 서부권은 모슬포 일대와 함께 가장 강력한 주저항진지로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 실체를 규명하고 제주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는 아직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 제주시 서부권에 어떤 부대 주둔했나

제주시 서부권은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주저항진지'대에 이어 어승생악을 중심으로 한 '복곽진지'대가 구축돼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주저항진지대에는 제96사단이 주둔했고, 제주시에는 제58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민오름~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오등봉 등지로 이어지는 주저항진지대는 일본군 제96사단 예하의 294연대병력을 중심으로 주둔한다.



▲제주시 남조봉에서 발견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에서 입구쪽을 바로본 모습.

이 일대는 도노미(정실)라 불린 개활지가 넓게 형성된데다 오름군이 펼쳐져 있어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취재팀의 탐사 및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94연대는 현재의 난지농업연구소 일대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병력 가운데 보병 중심의 2개 대대는 도노미 일대 개활지에, 포 부대는 민오름 동쪽 속칭 '활대왓'에 주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개 대대는 일본 육군동비행장인 정뜨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 경비병력이다. 비행장 경비병력은 도두봉에까지 파견됐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